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손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가을 이전 직권 조사 '숨방망이 제재' 탈피 처벌 수위 강화"

재벌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재벌가 일감몰아주기가 세균없는 부의 편법 승계라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르면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에 착수해 재벌가의 '적폐 청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 시령달에 오르며 예고했던 재벌개혁 작업에 본격화되는 셈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 행위 중 하나다. 계열사의 일감 지원으로 오너일가의 회사는 고수성장을 구가하지만 일감을 떨어진 회사는 기회비용을 상실한다.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도 원천 차단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도 심각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의지를 지속 밝혀왔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 30%가 넘는 상

장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공정위는 이를 2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더욱 세질 전망이다. 그는 최근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숨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첫 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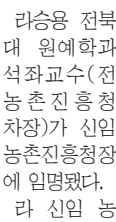
를 일감몰아주기를 손보기로 하면서 소수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우하는 순환출자 등 재벌가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갑의 횡포 사태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유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낸다.

김 위원장은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추진력 돋보이는 완벽 주의자"

리승용 전북대 석좌교수, 신임 농촌진흥청장 임명



리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전 농촌진흥청 차장)가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됐다.

라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고를 졸업한 후 9급으로 공직에 입문, 차관급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재 출신인 라 청장은 1957년생으로 김재농고(현 김제자연고)를 졸업한 뒤 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를 10년 동안 다녀 학사 학위를 따냈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려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검사에서 출발해 농진청 농약연구소·원예연구소 등에서 근무했으며 농진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장·연구개발국장,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가 국립축산과학원장 재임할 당시에는 축산과학원이 정부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3~2016년 1급 고위직 공무원인 농진청 차장을 지내다 지난해 연말 퇴직한 이후 현재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농진청 관계자는 "독일병정이라는 별칭이 따라 다녔을 정도로 공직 시절 무엇이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여름철 수박 구입시 주의 당부

수박 껍질 윤기 나고 줄무늬 고르고 진하게 형성돼 있어야

최근 온라인상에서 바이러스병에 걸린 수박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수박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과실이 물러진 경우엔 여름철에 쉽게 부패될 수 있으므로 수박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신선한 수박은 외관의 색과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좋은 품질의 수박은 껍질이 윤기가 나며 검은 줄무늬가 고르고 진하게 형성돼 있다.

또한 수박 모양은 원형 또는 단타원형으로 잘 생겼는데 기형과는 수박이 자리면서 정상적인 양분 공급을 받지 못해 모양이 정형으로 자리지 않고 어그러져 품질도 떨어진다.

수박을 살짝 두드려 소리라도 구분할 수 있다.

잘 익은 수박은 '뽕뽕' 하는 청명한 소리가 나며 덜 익은 수박은 '깡깡' 하는 금속음, 너무 익은 수박은 '퍽퍽' 하는 툇툇음이 나는데 쉽게 물러

진다.

이와 함께 왼손에 수박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수박의 중심 부분을 톡톡 두드렸을 때 잘 익은 수박은 오른손으로 두드린 진동이 수박 아래 왼손에서도 잘 느껴진다.

왼손에서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수박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박을 잘랐을 때 바이러스병에 걸린 수박은 과육의 씨앗 주변이 적자색을 띠고 과실 먹는 부위 곳곳에 황색 섬유상의 줄이 생기면서 물러진다. 이로 인해 부패가 시작된다.

식물바이러스는 동물바이러스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으며, 단지 식물에 침입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농가는 바이러스병에 걸린 수박을 출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병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2분 만에 감염여부를 판단할



여름철에 쉽게 부패될 수 있으므로 수박 구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박.

수 있다. 진단키트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정병남 농업연구관은 "식물바이러스와 동물바이러스는 숙주를 감염시키는 기본적인 감염 체계

가 다르기 때문에 식물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 자체가 안 돼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단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과실이 물러지고 부패될 수 있어 여름철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지 3년 이내인 이들이 금융이용에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들의 금융이용 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 비율(70.7%)에 견줘 낮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가 부족한 6만명의 채무조정대상자가 이번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나온다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조정대상자는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저축은행 25곳에서 채무조정대상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출시된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다리' 역할을 메우기 위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 지 3년 이내로 기존 사

잇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 기준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800만원 이상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연 14~19% 수준이다.

이번 상품은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교통사고 줄이기 나서

익산국도관리청 방문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는 17일 익산국도관리청을 방문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동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국도교통부에서 발표한 '2016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17개 권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어 오명을 남긴 바 있다.

또한 최근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81%나 급증(2016년 6월말 16명, 2017년 6월말 29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행권이 보장된 교통안전시설 확충, 과속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 개선 및 스마트 폰이나 영상장치에 의해 촬영된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강화방안과 맞춤형 영상제작 등을 협의했다.

김완중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 및 도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송병호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체도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문화지수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평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평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